

기도

1.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복음으로 역사되길 기도합니다.
2. 담임 목사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눔

1.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2.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은 적은 언제입니까?

신앙

바이블로 유다서

유다서는 짧은 분량을 가지고 있지만 이단에 대해 강도 높고, 강렬한 어조로 비판한다. 왜냐하면 당시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인 영지주의가 확산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유다서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오늘날도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유다서를 통해 날마다 진리 가운데 굳게 서기를 원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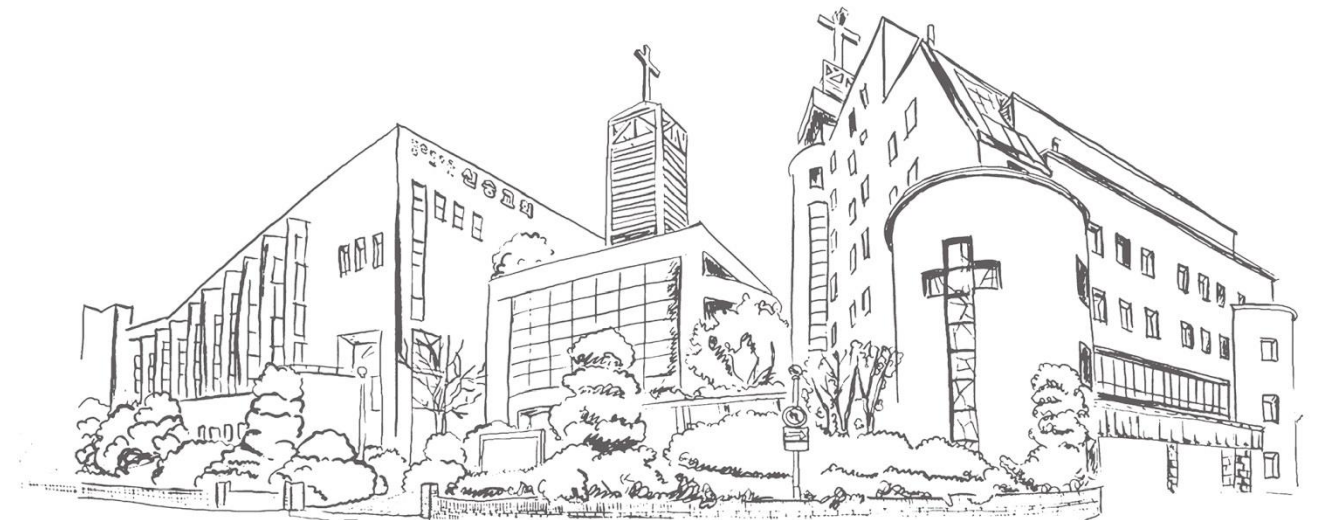


구역 공과

2022년 5월 1일

이 세대의 모습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사야 2장 2-4절)



이 세대의 모습

누가복음 7장 31~35절 (23장, 380장)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비유로 무감각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신앙의 잠이 들어 깨어 일어나지 못한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복음과 말씀을 역사되어 주를 위해 살고 복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세대의 모습에 대한 말씀입니다(31~34절).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믿음이 연약해졌고, 신앙의 잠을 자게 되어 예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세례요한을 책망하시고, 신앙의 잠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대신 사람들에게는 세례요한에 대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인정해주셨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였지만 반면에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세례도 받지 않고, 교만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가 어떤 모습인지, 왜 말씀을 받지 않는지 가르쳐주십니다.

첫째, 이 세대는 무감각한 세대입니다. 비유로 아이들이 장터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32절). 말씀을 받지 않는 이 세대의 모습이 바로 무감각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않은 채 살아감을 보여줍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것과 같습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합니다(엡4:18~20). 이것이 잘못된 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도이지만, 마음이 무감각해지고, 방탕함에 방임해두고, 어두운 길로 걸어가고, 욕심에 자신을 내어주기도 합니다. 마치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 하는 자들과 같습니다(딤후4:2).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마음이 점점 떠나다보니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무감각한 마음을 깨뜨리고, 다시 깨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민감하고, 말씀에 민감해져서 주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세대는 이기적인 세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례요한에 대해서는 먹지 않는다고 귀신들렸다고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방했습니다(33~34절). 자기 자신과 맞지 않고, 자기만이 우상이 되어 그 무엇도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말씀과 성령에 반응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주를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서 믿음으로 견고해지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는 열매로 옳다 함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35절).

지혜를 받는 자는 복음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말씀을 받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이런 사람은 자신의 자녀로 옳다함을 얻습니다. 자녀는 곧 열매를 말합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11:19).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받았으면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대로 순종해야 하고, 말씀을 순종할 때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과 혀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는데 그치지 말고, 행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는 생명과 능력이 있고, 살아서 움직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면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고, 말씀으로 역사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깨어 일어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붙드시고, 복음으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 일하고, 교회를 믿음으로 세워가고,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맺 음 말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무감각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도 처음부터 세례요한을 정죄하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복음을 받았고, 믿었고, 순종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무감각해지고, 점차 자신만을 위해 살아갈 때가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마음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를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역사해주시고, 열매 맺는 성도를 인정해주시고, 역사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